

기아, '더 2025 레이' 출시...사양 확대, 가격은 동결

연식변경 EV 모델...충돌방지 보조 장치 등 상품성 강화 '그레이 투톤 패키지' 추가...4인승 모델 라이트 2775만원

기아가 연식변경 모델인 'The 2025 레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The 2025 레이에는 기아의 대표 경차로, 연식 변경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급 안전·편의 사양을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출시 1년을 맞은 레이 전기차 라인업의 상품성을 강화했다. 기아는 레이 EV 승용 모델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LFA)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 I' 패키지와 블랙 하이그로시 가니시가 적용된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을 전 사양 기본화했다.

레이 EV 승용 에어 트림에는 ▲후측방 충돌 경고(BCW)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고차 충돌방지 보조(RCCA) ▲안전 하차 경고(SEW) 등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 II' 패키지와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LED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LED 보조제동등이 포함된 '스타일' 패키지도 기본화해 안전사양 보강과 함께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게 기아의 설명이다.

기아는 레이 EV의 기본 상품성을 대폭 강화하면 서도 전 트림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가격 인하를 한 것으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레이 가솔린 승용 모델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폴오트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를 기본화했다.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를 기본사양으로 탑재하고 기존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에 자전거 탐사자 인식 기능을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스타일 패키지 선택 옵션에 포함시켜 기본 트림인 트렌디부터 선택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 이밖에 도어 기아는 레이 전 모델에 실내 소화를 장착하고, 클락션 소리를 무게 감 있게 개선한 듀얼 혼(horn)을 적용했다.

기아는 또 고객의 디자인 선택 폭을 넓히고자 '어

드벤처러스 그린'을 신규 외장색상으로 추가하고, 루프와 A필러에 그레이 색상 필름을 부착하는 '그레이 투톤 패키지'를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레이 EV의 판매 가격은 기존 모델과 동일한 4인승 승용 모델 ▲라이트 2775만원 ▲에어 2955만원 (2인승 밴) ▲라이트 2745만원 ▲에어 2795만원 (1인승 밴) ▲라이트 2735만원 ▲에어 2780만원 이다.

레이 가솔린 1.0 모델은 승용의 경우 1400만원, 2인승 밴은 1350만원, 1인승 밴은 1340만원부터



시작한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5 레이에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품성을 대폭 개선하고, 트림별로 선호도가 높은 주요 사양을 기본 제공했다"며 "새로운



기아의 대표 소형 차량인 레이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5 레이' 내·외관.

외장 컬러와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추가해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누적 판매량 1000대 돌파

2019년 선 보인 '일렉시티 FCEV'

현대차는 7일 "수소전기버스의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기준 총 1032대를 기록하며 1000대 고지를 넘었다"고 밝혔다.

일렉시티 FCEV(사진)는 현대차가 1998년 수소 관련 연구개발(R&D)을 시작한 후 2019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도심형 수소 버스다. 최고 출력 180kW 연료전지 시스템과 875L 수소 탱크, 78.4kWh 고출력 배터리를 탑재해 장거리와 교통지체 구간 등 전기 소모율이 높은 운행 노선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ZF 신규 센트럴 모터가 적용된 연료전지 시스템과 동급 최고 용량 수소 탱크를 적용해 1회 충전으로 최대 550km를 주행할 수 있다.

수소 버스는 1대를 1년간 운행할 경우 소나무 2700그루가 같은 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72t을 감축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긍정적이다. 현대차는 이러한 기술력에 기반해 지난해 고출력 수소전기버스 유니버스 FCEV도 출시했다. 현



대차는 일렉시티 FCEV의 누적 판매 1000대를 기념해 지난 4일 경기 화성 톨링힐스 호텔에서 남양기술연구소와 함께 지역별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운수사 대표 등 40명을 초청해 감사 행사를 열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내 최대 육상 운송회사인 KD운송그룹과 오는 2027년까지 총 1000대의 수

도권 공항·광역·시내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 지원과 더불어 현대차에서도 수소 버스 1대당 4000만원 상당의 무상 수리 부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 버스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네시스, 'GV80 블랙·쿠페 블랙' 공개

내외장 블랙 마감, 전용 소재·사양 적용 고급스러움 극대화



제네시스 브랜드가 고급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제네시스 GV80과 GV80 쿠페의 블랙 모델을 공개했다.

GV80 블랙은 G90 블랙에 이은 제네시스 두 번째 블랙 모델로, 내외장 디테일까지 블랙으로 마감하고 전용 소재와 사양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제네시스는 소개했다.

GV80 블랙 외관은 크고 작은 요소들이 모두 검은 색상으로 구현돼 차량 고유의 차체 라인과 형태감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 가니쉬, 전면 엠블럼은 물론 헤드램프 내부 사이드 베젤 등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검은 색상으로 마감했다. 또 유광 검은 색상의 22인치 휠과 블랙 전용 플로팅 바퀴덮개를 기본 적용했다.

테일게이트에는 다크 메탈릭 색상의 제네시스(GENESIS) 레터링 엠블럼만 배치했다.

실내는 작은 요소들에도 적용된 검은 색상이 전용 내장재와 사양과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낸다. GV80 블랙 전용 리얼우드 가니쉬, 시트 가죽, 시트 퀵팅·패이핑, 카매트를 적용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토요타자동차 후원 누구나 꿈나무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성료



총 16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이병욱이 지휘를 맡았다. 협연자로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나섰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가득한 연습 과정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나카하라 도시유키 부사장은 "앞으로도 국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전문적인 교육을 후원함으로써 예술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9월 수입차 판매 전월보다 11.6% 증가

2만4839대...벤츠 1위 탈환

지난달 수입차 판매가 원활한 물량수급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2만2565대)보다 10.1% 증가한 2만4839대로 집계됐다. 전월(2만2263대)보다 11.6% 늘었다.

정운영 KAIDA 부회장은 "일부 브랜드의 원활한 물량수급에 힘입어 수입차 판매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 등록 순위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8382대)가 BMW(7082대)를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이어 테슬라(1349대), 렉서스(1312대), 불보

(1282대), 아우디(995대), 도요타(778대), 폭스바겐(760대) 등의 순이었다.

연료별 판매량은 하이브리드(1만5177대), 가솔린(5294대), 전기(275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846대), 디젤(769대) 등의 순이었다.

차종별로는 '전통의 강자' 벤츠 E클래스가 4941대 팔리며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다.

BMW 5시리즈(1998대), 벤츠 GLC(931대), 테슬라 모델Y(793대), BMW X3(640대), BMW 3시리즈(622대)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 브랜드 판매량은 유럽 2만247대(81.5%), 미국 2279대(9.2%), 일본 2313대(9.3%) 등의 순이었다.

구매 유형별로는 개인 구매가 60.7%, 법인이 39.3%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SUV 익스피리언스 센터 오프로드 코스.

벤츠, 국내 최대 오프로드 코스 오픈

용인 'SUV 익스피리언스 센터' 산악 주행·물웅덩이 통과 등 가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로드 코스 '메르세데스-벤츠 SUV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벤츠 SUV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경기 용인시 AMG 스피드웨이 트랙 인근 2만6천㎡ 부지에 조성된 오프로드 코스로, 숲과 나무, 경사면 등을 최대한 보존한 것이 특징이다.

벤츠코리아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손잡고 이러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벤츠코리아와 삼성물산 리조트의 제휴 협력은 이번이 두 번째로, 두 업체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의 AMG 브랜드 적용 트랙인 용인 AMG 스피드웨이를 연 바 있다.

벤츠 SUV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SUV 코스와 G클래스 전용 코스로 이뤄졌다. SUV 코스는 3개

의 다른 노면 및 각도의 슬로프를 갖췄다.

이 코스에서는 오르막과 내리막 주행, 바위, 모래, 자갈 등 다양한 지형에서의 주행이 가능한 뿐만 아니라 나무 밧미, 액셀 트위스트와 같은 장애물 체험도 할 수 있다.

G클래스 전용 코스에서는 숲 등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산악 주행, 물웅덩이 통과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체험 차량으로 내연 기관 모델인 GLC, GLE, GLS와 전기구동 SUV인 EQE SUV, EQS SUV 등을 제공한다. 참가자는 G클래스의 신형 모델도 경험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있는 G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교육받은 숙련된 인스트럭터가 참가자 수준에 맞춰 오프로드 주행을 지도한다. 택시 드라이빙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는 "한국 고객들에게 더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고성능 SUV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